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한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배은석<sup>1</sup>, 박해금<sup>2\*</sup>

<sup>1</sup>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up>2</sup>지역사회와 복지연구소 연구위원

The impact of the parenting attitud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on their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Eun-Suk Bae<sup>1</sup>, Hae-Keung Park<sup>2\*</sup>

<sup>1</sup>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sup>2</sup>Researcher, Ability Based on the Community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한국문화수용태도와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12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글폼을 활용한 온라인 서베이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응답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집은 눈덩이임의표집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높은 요구 및 반응을 보이는 권위적 태도를 보일 때 아동·청소년이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한국문화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한국문화수용태도가 결국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서적으로 느끼는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된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에서 자아존중감이 없이는 이 모형자체의 성립이 어려움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개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of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KCAA) for living in Korean society. Additionally, the study sought to demonstr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is relationship.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26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16 district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using Google Forms. Due to the difficulty in securing respondents among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mbination of snowball and random sampling methods was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attitud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elf-esteem of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uggests that when parents exhibit an authoritative style with high demands and responsiveness,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elf-esteem. Second, self-esteem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KCAA. This finding confirms that self-esteem, which is the emotional feeling of how valuable one is, is crucial for the KCAA, which is necessary for adapting to Korean society. Third, self-esteem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without self-esteem, this model cannot be establish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activation of various parenting support programs and the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diverse interventions necessary for the growth proc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eywords** :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Parenting Attitude,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본 논문은 2022년도 고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연구데이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제안 연구의 일부를 활용하였음

\*교신저자 : 박해금(park\_0710@hanmail.net)

접수일 2024년 11월 05일 수정일 2024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2024년 12월 04일

## 1. 서론

학령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은 1.68%에서, 2022년 3.19%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시기를 ‘다문화 학생 등’으로 칭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이주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과거 다문화 학생 대신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다문화’의 개념은 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통용되었다가 탈북자, 중도입국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주배경’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학교에서의 부적응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다른 비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의 중도탈락, 진로·취업 기회 부족, 사회참여 활동에서의 배제 등 부정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여전히 소위 타국의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듯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표방하는 이주민 정책이 다소 일방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이라는 지표가 대표적이라는 것에서 이를 가늠케 한다.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중언어 체계, 본인의 모국 또는 부모의 모국 문화 수용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들에게 접근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한국 내 비이주민과 함께 동화되어 한국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강요하는 면이 적지 않다[2, 3]. 한국어의 익숙한 사용, 한국문화에 잘 적응해내는, ‘타인이 원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보다는 ‘살아내기’가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반성에 기반하여 최근 우리사회는 정부 정책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주민

들의 모국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4, 5, 6, 7]. 일반적인 한국사회로의 적응이 아닌 균형이 있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본인의 자아존중감[8], 우울과 학교적응[9], 사회적 지지[10], 진로장벽인식[11] 등 다양한 경험에 주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요인 중 하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잘 형성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 사회 적응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12].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에는 결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익숙함은 한국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경험과 역동을 이해하지 않고, 대안만 제시하는 일종의 강요가 될 수 있다. 즉 그들 개인과 가족에서의 삶이 고려된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한국 사회적응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데 초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인 틀 위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사회에 건강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향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순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입안에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국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가?

셋째,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2. 이론적 논의

### 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한국 사회 적응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이주'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13]. 물론 여기에는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온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이주배경에 대한 개념이 매우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와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구분하고, 여기서 다시 아동·청소년 본인이 국내출생이나, 국외출생이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그 부모가 또는 부모의 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이나, 그리고 남한에서의 출생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이주배경의 유형이 세분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적응의 경험이 다양하며,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273,722명으로, 약 10년 전인 2012년 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자녀 수인 168,583명에 비하여 약 62.4%나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수는 2021년 4월 기준 160,058명으로 이 역시 10년 전인 2011년 11월 기준 다문화학생 수인 38,678명에 비하여 무려 313.9%나 증가한 상황이다[14].

이들은 한국사회의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실제로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부적응 및 동일 연령대 전체 국민 대비 학력격차 등이 심화하고 있다. 학력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18%에서 2021년 31%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을 역시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다[1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실천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2 선행연구고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 행동, 그리고 감정적 태도를 말

하며, 이는 자녀의 성격 형성과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집단이 가정이며, 그 중 부모는 그 집단의 전체 문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적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16].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권위적 양육, 허용적 양육, 방임적 양육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권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일상이나 외부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내적 성장과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태도이며, 반면에 방임적 양육태도는 무관심, 방관 및 방치 등에 해당하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7]. 이러한 양육태도의 영향은 자녀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와 부산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다문화 청소년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길잡로써의 역할을 요구된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자녀의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수용태도는 이주자가 주류문화와 자신의 모국문화를 조화롭게 결합하거나, 선택적으로 한쪽을 더 선호하는 방식과 같은 태도를 말한다[18].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주류문화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수용태도는 개인의 신념, 가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적응하는 방식과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9].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감정이다[20]. 또한 개인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변인이기도 하다[21].

문화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류문화와 모국문화를 모두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것으로 설명한다[22]. 또한 문화정체성을 주류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어떤 문화를 지향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정체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23].

이처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생애 경험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의 복합적 역동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한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설문조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16개 구군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교육 및 복지시설의 협조를 구한 이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글폼을 활용한 온라인 서베이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표집방법으로는 눈덩이 표집방법과 임의표집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되었고 최종 조사된 사례 수는 126명이다.

#### 3.2 측정도구

##### 3.2.1 독립 및 종속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인 한국문화수용태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설문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대표적인 문항은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준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문항 중 8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종속변수인 한국문화수용태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대표적인 문항은 '나는 한국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3.2.2 매개변수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 중 3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 4점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까지의 4점으로 측정되었다. 대표적인 문항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Main Variables

Area	Variable	Survey questions (questions numbers)	measurement	reliabilit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
	age	How old are you?	open	-
	education	What is your highest educational level?	①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below-⑦At least enrolled in graduate school	-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How many family members do you live with?	open	-
Independent	Parenting attitude	My parents show me a lot of interest, etc.(8)	4-point Likert ① Not at all ④ Very much so	.94
Dependent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I am proud to live in Korea, etc. (5)		.86
Parameter	self-esteem	I think I am a valuable person like other people, etc. (3)		.83

#### 3.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5.0 및 AMOS 23.0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였다. 둘째, 데이터의 정규성 및 다중공선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활용했다. 넷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모형 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으로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TLI, CFI, RMSEA 등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TLI 및 CFI는 .90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RMSEA는 .10이하인 경우 양호한 모형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위해 CFI, TLI, RMSEA값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권장된다[16].

### 4. 연구결과

####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2>와 같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성이 57.9%로 과반수 이상을 보였다. 연령대에서는 12세 이하가 41.3%로 가장 많았다. 다니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39.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도 32.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같이 생활하는 가족의 수에서는 4명이 38.1%로 가장 많았고, 3명도 29.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frequency	%
gender	male	53	42.1
	female	73	57.9
age	12 years and younger	52	41.3
	Under 13~15 years old	39	31.0
	Under 16~18 years old	25	19.8
	19 years old or older	10	7.9
	mean	sd	
	13.75	3.49	
education	elementary	50	39.7
	middle	41	32.5
	high	15	11.9
	Others (alternative, etc.)	20	15.9
Number of family members	2 people	16	12.7
	3 people	37	29.4
	4 people	48	38.1
	5 or more people	25	19.9

####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 전체는 3.14점(sd=0.71), 한국문화수용태도 전체는 3.27점(sd=0.56), 자아존중감은 3.03점(sd=0.67)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정규분포 기준으로 왜도는 절대값 2를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7을 넘지 않으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활용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의 주요 변수 및 하위변수의 왜도는 -1.19~-0.32, 첨도는 -0.64~1.72의 수준으로 정규분포 가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N=126)

variable	minimum	maximum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attitude	p1	1.00	4.00	3.07	0.79	-.91	.95
	p2	1.00	4.00	3.10	0.87	-.73	-.13
	p3	1.00	4.00	3.21	0.80	-.96	.71
	p4	1.00	4.00	3.24	0.83	-1.06	.75
	p5	1.00	4.00	3.11	0.81	-.84	.53
	p6	1.00	4.00	3.02	0.89	-.60	-.40
	p7	1.00	4.00	3.34	0.79	-1.18	1.10
	p8	1.00	4.00	3.05	0.90	-.76	-.11
	total	1.00	4.00	3.14	0.71	-1.19	1.72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d1	1.00	4.00	3.27	0.71	-.85	.92
	d2	1.00	4.00	3.33	0.72	-.86	.43
	d3	1.00	4.00	3.26	0.69	-.55	-.22
	d4	1.00	4.00	3.17	0.75	-.65	.13
	d5	2.00	4.00	3.33	0.61	-.32	-.64
	total	1.60	4.00	3.27	0.56	-.53	-.06
self-esteem	b1	1.00	4.00	3.02	0.76	-.70	.59
	b2	1.00	4.00	3.03	0.70	-.60	.79
	b3	1.00	4.00	3.05	0.84	-.67	.00
	total	1.00	4.00	3.03	0.67	-.76	.66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쌍은 다문화 정체성과 자아존중감( $r=.513, p<.001$ )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r=.331, p<.001$ )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든 상관관계의 쌍에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인  $r=.80$  이상의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main variables(N=126)

variable	Parenting attitude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	1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143	1	
self-esteem	.331***	.513***	1

\* $p<.05$ , \*\* $p<.01$ , \*\*\* $p<.001$

#### 4.3 구조방정식 분석

##### 4.3.1 측정모형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과정은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분석한 이후, 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분석결과  $X^2 = 185.961(df=101,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의 수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수가 커질수록 카이제곱의 값이 커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야 한다[16]. 이에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sup>1)</sup> TLI=.924, CFI=.936, RMSEA=.082로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easurement Model

variable	Estimates		S.E.	C.R.	
	B	$\beta$			
Parenting attitude	p1	.785	.750	.080	9.874***
	p2	.875	.765	.086	10.164***
	p3	.854	.804	.078	10.978***
	p4	.977	.886	.076	12.886***
	p5	.952	.886	.074	12.887***
	p6	.934	.794	.087	10.753***
	p7	.885	.845	.074	11.889***
	p8	1.000	.838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d1	1.271	.826	.136	9.353***
	d2	1.368	.881	.138	9.914***
	d3	.925	.613	.137	6.756***
	d4	1.002	.616	.148	6.792***
	d5	1.000	.759		
self-esteem	b1	.885	.792	.101	8.792***
	b2	.785	.764	.092	8.516***
	b3	1	.817		

$X^2=185.961(p<.001, df=101, TLI=.924, CFI=.936, RMSEA=.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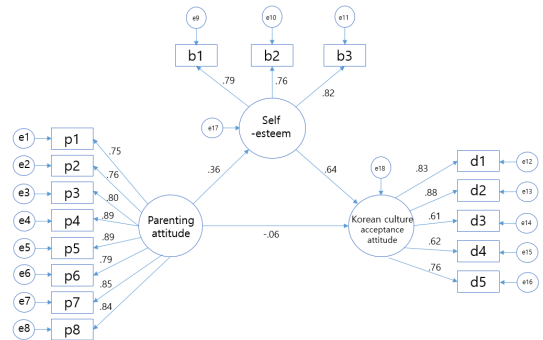
\*p<.05, \*\*p<.01, \*\*\*p<.001

### 4.3.2 구조모형 분석결과 및 매개효과 검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므로 다음 단계인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와 [Fig. 1]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55, p<.001$ ).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한국문화수용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36, p<.001$ ).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한국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함을 뜻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의 관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6> Path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of SEM

path	Estimates		S.E.	C.R.
	B	$\beta$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284	.355	.080	3.543***
self-esteem→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615	.636	.110	5.616***
Parenting attitude→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047	-.061	.070	-.665
mediating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Korean culture Acceptance attitude	.165*	-.061	.226***	.127-.359

$X^2=185.961(p<.001, df=101, TLI=.924, CFI=.936, RMSEA=.082)$

\*p<.05, \*\*p<.01, \*\*\*p<.0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 분석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문화 가정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을 밝힌 연구[25], 비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힌 연구[26]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시, 아동·청소년에

1)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는 TLI, CFI > .90, RMSEA < .10이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16].

비해서 높은 요구와 높은 반응을 보이는 권위적 태도를 보일 때 아동·청소년이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이다. 이 경우, 한국 태생 비다문화 가정과 달리 한국사회적응이라는 사회적 과제까지 수행해야 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한국문화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27]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한국문화 수용태도는 결국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서적으로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부모의 우호적인 양육태도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높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한국 사회의 적응의 수준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한국문화수용태도의 증진에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부분매개로 밝혀진 연구[28]에 의해 지지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한국문화수용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9].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들이 존재하는 것은 두 변인의 관계에서 다양한 매개요인과 같은 외생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들을 위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이중언어, 학습 지원, 정서 지원, 동료 상담, 문화 체험, 부모 교육, 부모 자조 모임 등과 같은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선택의 폭이 좁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공부와 다문화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부모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 실

제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상자의 가정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문형 프로그램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이주배경을 가진 사례가 많다. 즉 한국태생의 한국인으로 한국사회적응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보호자는 아버지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단순한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쉽게 개선되는 정서적 감정은 아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개입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최소한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는 관련한 센터는 다수 존재한다. 다만 각 센터, 복지기관 등에서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서비스가 이들의 포괄적 삶의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광역단위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 건강, 정서, 심리, 복지 등의 복합적 서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통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문제를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고, 이들의 역할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개인단위와 더불어 가족단위의 개입이 요구된다. 현재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단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개인단위의 개인욕구에 기반한 분절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이주배경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국국적의 아버지도 이주배경의 당사자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가족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구단위 사례관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 비해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어느정도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은 연구가 이루어질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주

배경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개인, 당자가에게만 있지 않고, 가족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REFERENCES

- [1] M. J. Park, Y. H. Cho, S. I. Park, K. D. Han, K. Y. Moon, I. J. Yun, S. Y. Mo, W. Lee, Y. S. Kim, H. J. and Kwon, H. S. Jeon, "Survey of foreign residents to establish immigration policy in Chungcheongbuk-do".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er.
- [2] J. G. Lee and H. J. Lee, "The Influence of Bilingual and Bicultural Factors on Self-esteem of Multicultural Youth",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0, No.4, pp.81-100, 2022.
- [3] J. Y. Jung and S. G. Chung,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Assimilation or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7 No.4, pp.121-142, 2014.
- [4] A. Y. Jang, H. K. Lee and H. Y. Fang, "The Impa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Vol. 14, No.3, pp.137-160, 2024..
- [5] E. Y. L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orn in Korea", *Journal for the Study of Reformed Theology*. Vol. 23, pp.176-198, 2023.
- [6] H. K. Kim, "The Formation of Identity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23.
- [7] J. Y. Choi and Y. J. Moon,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Acceptance Attitude to Korean Culture and Foreign-born Parent's Culture and Gender Differences",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Vol. 8. No. 2. pp.1-30, 2023
- [8] S. J. Kim and I. S. O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Acculturation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4 No. 2, pp.21-49, 2023.
- [9] O. Jung, "Classifying Latent Classes by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Investigation of influential factors and differences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group]", *Sungkyul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23.
- [10] J. Y. Choi and Y. J. Moon,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Acceptance Attitude to Korean Culture and Foreign-born Parent's Culture and Gender Differences",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Vol. 8. No. 2. pp.1-30, 2023
- [11] E. H. Kim and M. A. Jung, "Longitudinal Mutual Casual Relationship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Bicultural Attitudes and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26, No. 1, pp.51-75, 2024.
- [12] H. S. Woo, "A study about the deciding factor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that the children of immigrated background", *Sungkyu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13] G. M. Yang, O. Y. Kwon, Y. S. Lee, Y. S. Jang and I. S. Jang. "Late Adolescence for Social Integration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Immigration-Background Youth Part 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3.
- [14] D. H. Shin, J. M. Lee, M. K. Hong, Y. H. Lee, S. A. Lim and J. H. Kim, "2023 Longitudinal Study of Multicultural Youth: Executive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3.
- [15]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n multicultural population dynamics in 2022", 2022.
- [16] S. E. Baek,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4, No.3, pp.3859-3874, 2023.
- [17] S. H. Yoo and S. H. Cho,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Career Attitud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Multiculture & Peace*, Vol.16, No.1, pp. 203-223, 2022.
- [18] S. J. Kim and I. S. O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Acculturation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54 No.2, 21-49, June 2023.
- [19] Berry, J. W.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pp. 9-25). Boulder, CO: Westview. 2005.
- [20] K. H. Cha,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traits and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9, No.1, pp.7-26, Jan. 2001.
- [21] H. Y. Kim,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photo images to improve self-esteem for seni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8, 2017.
- [22] Eyou, M. L., Adair, V., and Dixon, R. "Cultural ident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 Chinese immigrants in New Zealand". *Journal of Adolescence*, Vol.23, No.5, pp.531-543. 2000.
- [23] Sam, D. L., Vedder, P., Ward, C., and Horenczyk, G..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 youth. In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pp.119-143). Routledge. 2006.

[24] Shrestha, N. "Detecting multicollinearity in regression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Vol.8, No.2, pp.39-42. 2020.

[25] S. A. Nam and J. S. Baik.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f Child and Early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 9, No. 1, pp.3-12, 2011.

[26] H. L. Chang and I. J. Chung.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Mediated by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40, pp.33-61. 2013.

[27] D. J. Park and S. M. Kim,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6, No. 2, pp.267-273. 2021.

[28] I. T. Park,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 2, pp.539-548. 2021.

[29] A. S. Woo and J. N. Paik,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Biculture Accept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 pp.379-388. 2021.

**박 해 금(Hae-Keung Park) [정회원]**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5년 3월 ~ 2020년 8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20년 9월 ~ 2024년 10월 : 경남·울산사회서비스원 책임·선임연구위원
- 2024년 10월 ~ 현재 : 지역사회와 복지연구소 연구위원

〈관심분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경제

**배 은 석(Eun-Suk Bae) [정회원]**



- 201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지역사회와 복지연구소 이사

〈관심분야〉  
 사회복지행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조직화